

# TEE Times 티 타임즈

발행인 한순진 | 편집인 최용

등글레 칼럼 / 한순진

**“정말 그들이 더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센터교회 탐방

**참평안교회 (담임 : 현혜광 목사)**

인터뷰

**김우준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SEAN + KTEE

**Dr. Markus Voelker 논문 요약 및 적용**

책소개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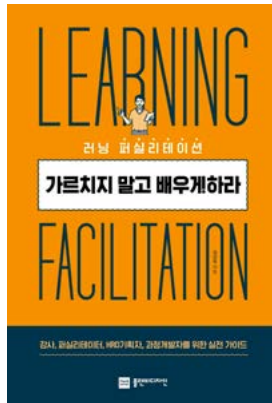
**2024년 첫 TEE 세미나 1월 4-5일 지구촌교회/서울**

## “정말 그들이 더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최근 TEE 학습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책을 흥미 있게 보고 있다. 정강욱 저 ‘러닝 퍼실리테이션’ (Lerning Facilitation, 플랜비디자인 발행)이라는 책이다. 이 책의 표지의 표제는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라”이다. 나

는 이 표제만 보고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 책을 샀다. 저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내가 가르친다고 학습자들이 배우는 것일까? 둘째, 학습자들은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천할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TEE 사역 현장에서 늘 해왔던 질문이었다.

이 책을 언급한 김에 이 책에 나온 재밌는 예가 있어 더 소개해 본다.



“목사인 매형이 어느 날 보일러 수리기술을 배우겠다고 잠시 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보도된 유명한 보일러 명장을 찾아가서 몇 달간 기술을 배운 겁니다. 하지만 결국 보일러 기술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 덕분에 일터의 어려움을 아는 좋은 목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수리기술을 배운 동료들 중에도 보일러 기술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장님이 알려주는 것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의 명장이 곧 보일러 수리 가르침의 명장은 아닌 것이죠. 이런 현상을 ‘지식의 저주 curse of knowledge’라고 합니다.”

은 목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수리기술을 배운 동료들 중에도 보일러 기술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장님이 알려주는 것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의 명장이 곧 보일러 수리 가르침의 명장은 아닌 것이죠. 이런 현상을 ‘지식의 저주 curse of knowledge’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덧붙인다. “교육을 잘하려면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내가 가르친다고 학습자들이 배우는 것일까?  
둘째, 학습자들은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천할까?



신이 가르치려는 주제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라는 전문성이 있다면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전문성을 이용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방식의 변화에 앞서 역할인식의 변화가 우선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우게 하는 사람으로의 자기 역할인식의 변화, 즉 강사 instructor 에서 학습촉진자 Learning Facilitator 로의 변화 말입니다.”

주로 일반 대기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저자이기에 더 흥미가 있었다. 그런 곳에서 강의를 한다면, 핵심이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이 전달력이 있어야 하며, 유머가 있고, 스피치가 좋아야 한다는 점들이 더 강조되어야 할텐데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라는 그의 외침은 오히려 우리 교

회의 훈련 현장에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늘 잘 가르치는 것보다 학습자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EE 학급모임의 좋은 인도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마치 “TEE 그룹 곁에서 5분 이상을 지켜봐도 누가 인도자인지 잘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모임을 위한 좋은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큰 신호이다. 그럴 때 학습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TEE 인도자는 설교자도, 유명 강연자도 아니다. 학급의 그룹원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촉매자인 것이다. 연말은 우리에게 가르침보다 배움을 더 생각나게 해준다. 정말 그들이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순진** | 목사, KTEEmini스트리 디렉터

# INTERVIEW

## 모두가 제자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 TEE 성경공부와 삶의 적용이라는 두 개의 날개



토렌스 조은교회  
김우준목사

TEE는 신학대안교육으로 출발을 했지만, 제자 삼는 도구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훈련을 제자훈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TEE를 제자훈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시도이다. 이번호 저널에서는 미주 한인교회 가운데 TEE가 지역교회 제자훈련의 중심이 되어 활발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토렌스 조은교회 담임 김우준목사를 인터뷰하였다. 지역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이 리더십이 바뀔 때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김목사는 2017년 부임하여 전임자가 해오던 TEE를 계속 이어 받아 발전시켰다. 그의 인터뷰를 통해 토렌스 조은교회의 TEE 이야기를 들어보자.

교회의 비전을 모두가 제자되어 모두를 제자삼는 교회로 정하셨는데, 그렇게 정하신 목적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 섬김, 훈련, 전도, 그리고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이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제자훈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겸손히 섬기며,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고, 열정으로 전도하며, 사랑으로 교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청사진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구체적인 양육과 훈련플랜 (시스템)을 소개해 주십시오.

제자훈련은 성경공부에서 시작하여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자 양육을 위해 두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날개는,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렌스 조은교회는 TEE 성경 공부 교재를 Discipleship 1 (기초 과정), Discipleship 2 (리더 양성 과정), Discipleship 3 (지도자 심화 과정) 으로 나눠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두 번째 날개는, 삶의 적용입니다. 성경말씀이 머리지식으로만 남을 때 신앙생활은 병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웠으면 반드시 예배, 섬김, 전도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 TEE와 함께 전과정 수료식



D1 과정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와 전체적인 성경의 개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과정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나 장기간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접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영적토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교재: 풍요로운 삶 1-3권 / 풍요로운 빛 1-3권 / 에베소서 1-2권



D2 과정

예수님의 생애를 6 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공부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 대두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복음주의 관점에서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성장하는 제자의 보다 깊은 헌신을 위한 리더 양성 과정입니다.

교재: 세퍼드라이프 1권-6권 / 인카운터 1-3권



D3 과정

성숙한 제자를 위한 지도자 심화 과정으로 모세오경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서신을 통해 만나는 복음의 진리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고취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교재: 모세오경 1-2권 / 바울서신 1-3권

▲ 토렌스 조은교회의 훈련과정. 교회 상황에 맞춰 D1, D2, D3로 구성되어 있다.

제자훈련에 관한 토렌스 조은교회의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하니 우리 같이 합시다!” 선교 여행가는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말합니다: “올해 내가 베트남 선교 가니 우리 같이 갑시다.” 부엌 봉사하는 성도가 다른 성도를 권합니다: “이번주에 부엌 봉사하니 우리 같이 섬김시다.” 이렇게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예배와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주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본이 되어 삶으로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예배나 사역의 자리로 인도한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드리거나 건성으로 섬길 수 없기에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어 자연스럽게 인도한 사람이

먼저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받은 사람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준 사람의 삶을 보고 배우기에 자연스럽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TEE 그룹을 포함하여 몇 개의 훈련 소그룹이 있으며, 학습자들의 대략적인 현황, 그리고 이 그룹들을 인도하는 리더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습니까?

토렌스 조은교회는 현재 한어권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31개의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습자들을 위하여 일부의 성경공부 반은 on-line으로도

열립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본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수료한 성경 공부 리더들과 예비 리더들은 성경 공부 담당 사역자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목자의 마음을 겸비하고 교사로서의 사명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교회 리더십은 성경 공부 리더들이 먼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삶’의 모본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하며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합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TEE를 통한 훈련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꼭 그런 특수 상황 뿐 아니라 TEE가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TEE 교재의 탁월함은 지식축적에만 치중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삶을 나누도록 인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눌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닐 때도 삶의 적용과 나눔에 집중할 수 있기에 단순히 말씀을 머리 지식으로만 쌓아가기보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점이 큰 유

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교재에서 배운 말씀을 기반으로 삶을 나눔으로써 여러 사람의 삶에서 살아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 들으며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TEE를 통한 교인들의 변화와 성숙의 예들이 있다면?**

TEE를 통한 교인들의 변화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성경 전반에 대두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조감도 부재로 성경 읽는 것을 어려워하던 교인들이 TEE 교재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며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는 변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TEE교재에서 각 과마다 제공하는 ‘생각해 보기’ 문제는 각 과에서 깨달은 영적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게 인도하고, 학습자들이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TEE 성경 공부를 통해 이러한 영적 토대가 마련된 교인들은 성경적인 생활 원리를 삶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매진하는 성숙한 제자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



### 센터교회탐방 / 참평안교회 (담임: 현혜광 목사)

서울 낙성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시작한 TEE가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가 있다. 세대를 넘어 젊은 이와 어른들이 말씀 앞에서 토론하며 웃고 울며 서로를 축복하는 리더십 그룹. 그렇게 복음과 진리가 다음 세대로 힘차게 흘러 약진하는 교회를 만났다. 참평안교회, 그곳에는 확신에 찬 영적 리더십이 있었다.

## “세대를 이어주고 소통을 만들며 같은 길을 가게 한다” TEE의 디테일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말씀을 회복시켜



참평안교회  
현혜광 목사

### TEE를 만남 : 리더를 위한 교재를 찾아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많은 교회가 그 중요성을 알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우회하거나 곁길을 가기도 한다. 서울 관악구에 낙성대에 위치한 참평안교회는 비교적 일찍이 그 길을 찾은 교회이다. 현혜광목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교회로 부임해 와서 2007년 담임으로 취임한 후, 초기 2년여 동안 좋다는 행사, 집회, 프로그램을 많이 시도해 보았다고 한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런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겠다’였다. 그는 ‘우리는 이제 무조건 본질로 간다’고 작정한 후 예배와 말씀 훈련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몇 가지 교재를 중심으로 ‘셀’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시도해 보았다. 기초반은 현목사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하였지만, 리더반은 좀 더 잘 구성된 교재가 필요하였다. 직접 훈련 교재를 써보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 분명했다. 그 즈음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후배 목회자를 통해 TEE를 소개받았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역은 책을 읽고 자료를 모집하면서 스스로 연구하고 준비하는 편인데, TEE는 꼭 세미나가 필수라고 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웨비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워크숍을 해보면서 ‘이거 정말 괜찮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웨비나 후 세퍼드라이프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을 예배와 말씀 훈련에서 찾았고, 말씀 훈련을 위한 도구로 TEE를 만났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부교역자들에게도 세미나를 듣게 하고, 필요한 과정들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다.

### 반복이 위대한 가르침임을 배우다.

“저는 보통 한 번 설교하거나 가르친 것은 잘 반복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TEE는 반복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리 반복이 많을까’하고 생각했다가 점차 ‘적절한 반복이 정말 중요하구나’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평안교회는 TEE를 진행하면서 암송을 강조하고 있다.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란다.



TEE의 반복은 중요한 내용을 외우게 할 뿐만 아니라, 반복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을 늘 발견하곤 한다. 그 결과 그는 그 방식을 적용해서 오래전 했던 설교들을 다시 살펴보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전하면서 그 때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

###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TEE 교재들

“제가 이전에도 다양한 교재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TEE의 강점은 반복 외에도 ‘디테일’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제자훈련 교재들은 (물론 훌륭한 교재들이지만) 잘 살펴보면, 다소 포괄적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이 주를 이룹니다. TEE교재, 특히 세퍼드라이프는 디테일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성경 본문 안에서 맥락이 분명하고 디테일한 이해, 역사적 배경, 지리적 여건, 다른 본문들과의 비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므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아주 적합합니다.”

이런 디테일을 만나기 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에서 설교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삶의 나눔이나 포괄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많이 나누었다. 그런데 그 나눔이 기존의 훈련 교재들과 내용이나 방향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TEE를 만나면서 성경의 본문과 배경에 대한 디테일은 모호한 부분을 없애주고, 신앙의 확신과 이성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것이 확실한 차이였다. 그 결과 원래도 나눔을 많이 가졌지만, 나눔의 방식과 레벨이 달라졌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신앙 따로 삶 따로이다. 카더라 통신, 어디서 대충 들은 내용, 모호한 말씀만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다가 삶에서는 악덕업주, 싸움꾼, 갈등 메이커가 되는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다.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닐까? 그런데 TEE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준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모호한 생각을 끊어내게 한다.



“참평안교회의 TEE의 시작은 팬데믹 기간이었다. 학습교재가 찾아가서 가르치는 방식이므로 온라인에도 적용이 잘 되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사람이나 환경,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도록 도전한다.

###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TEE 그룹들

참평안교회의 세퍼드라이프 모임에는 리더들 중심으로 모인다. 거기에는 장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 리더들도 참여한다. 한 그룹 안에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한다. 현목사는 장로님들 자랑을 서슴치 않는다.

“감사한 것은, 우리교회 장로님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훈련에 그들이 앞장서서 적극 참여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재를 받으면 그 주간에 한 학기 분량인 한 권 전체를 다 공부해 오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교재가 너무 재밌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세대가 섞이면 어른들만 고지식한 말을 하거나 그

릴 수 있는데, 먼저 어른들이 솔직하고 편하게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청년들의 이야기에도 귀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니 청년들도 신이 나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지요.”

예를 들어, 지난 주 세퍼드라이프 모임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접근과 직접적인 접근에 대해 나누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대화가 저출산과 빈부격차였다고 한다. 특히 청년들이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들이 솔직하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회에는 비율적으로 여성이 많다’, ‘교회 내 연애가 눈치 보인다’ 등 구체적인 대화들이 열띤게 오갔다. 이 때 어른들이 ‘한 번에 너무 깊게 만나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만나보고 대화를 많이 해봐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아닌가 하는 판단을 주실 것이다.’는 조언도 해주고, 자신들의 과거 경험과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활력이 넘치는 모임이 되었다고 한다.

목회자나 친구가 말하는 것과 믿을 수 있는 교회 어른이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은 전혀 다를 것이다. 이 교회 내 수석 부목사가 진행하는 세퍼드라이프 2권의 모임도 절반은 4,50대 이상이고 나머지 절반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 이야기가 많은지 그 그룹은 담임목사의 그룹보다 늦게 끝날 때가 많다. 그 방에서 나오는 그룹원들의 표정을 보면, 그곳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다음세대로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

TEE를 통한 세대간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모임도 살아나고, 그런 소통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참평안교회는 젊은 세대가 많은 편이다. 낙성대라는 지역의 근처에는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 등 대학들이 있고, 1인 세대가 많다. 그리고 길만 건너면 오래된 지역이어서 연세가 있는 주민들이 많다. 줄잡아 청년과 어른들의 비율이 1:1정도이다. TEE는 이런 세대를 이어주고, 소통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 교회는 장로들과 어른 세대가 술선수범하면서 훈련에 헌신하므로 가능해진 일이다.

“모임을 하면 보통 청년들이 나와 가까이 앉고 어른들은 반대편에 앉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세

대가,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며 감동이 되곤 합니다. 그것이 내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프로그램 만으로 는 되지 않을 것이다. 세대가 함께 어울리도록 하는 일은 말씀이 기반이 될 때 안정적이다. TEE는 말씀에 맞춰 함께 가도록 하므로 모든 세대가 같은 길, 같은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하면서 더 힘을 얻는다. 그들을 축복하고 나면 자신들이 더 힘이 난다.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어른들이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에서 힘은 얻는다. TEE를 통해 세대가 함께 하는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큰 특징이다.

###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

참평안교회의 TEE의 시작은 팬데믹 기간이었다. 학습교재가 찾아가서 가르치는 방식이므로 온라인에도 적용이 잘 되었다. 그 당시 이 교회는 새벽 예배부터 매일 목상까지 다양한 온라인의 방법을 계발하고 활용했으므로 TEE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대면으로 모여서 세퍼드라이프 모임을 하려고 하자 문제가 생겼다. 온라인으로는 가능하



*“보통 청년들이 나와 가까이 앉고 어른들은 반대편에 앉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세대가,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며 감동이 되곤 합니다.”*

지만, 교회에까지 와서 참여하기에는 거리상 여건이 안되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금년부터는 아예 현장 모임을 하면서 한 쪽으로는 카메라와 모니터를 놓고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간 적응들이 잘 되어 있어 이런 환경에서도 나눔이 잘 되고 있다. 어디에서나 시간만 조절하면 모임에 함께 할 수가 있고, 어떤 교인은 오히려 그런 방식을 더 재미있어 한다. TEE의 방법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 계속 되는 TEE에 대한 기대

참평안교회는 주일 예배 이후에 셀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TEE 모임을 갖는다. 현재 4개 그룹이 진행 중이며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 내년엔 6권 그룹이 시작된다.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끝도 보입니다. 그 끝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보통 부교역자가 바뀌면 훈련이 멈추거나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TEE를 중심으로 시스템화 되면 그럴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TEE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목회자들에게도,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TEE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좋은 훈련 교재를 만들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신 KTEE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SEAN + KTEE

## Dr. Markus Voelker 논문소고

### 어떻게 TEE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이 글은 TEE의 국제본부 SEAN 총재 Markus Völker의 컬럼비아 국제대학교 유럽문화신학대학(ESCT) 목회학박사 논문 “Successfully Completing A TEE Programme”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발췌 정리한 자료입니다.

#### 논문 소개

이 논문은 먼저 기독교 역사를 5 단계로 나누어 각 시기의 ‘신학 교육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된 4 가지 ‘신학교육모델’(아테네, 베를린, 제네바, 예루살렘)을 분석/정리하고, TEE가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힙니

다. 나아가 TEE가 과거의 신학/성경 교육들이 가진 장단점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지난 50여년간 적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TEE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페루 TEE 선교사였던 Markus Völker는 선교지에서 많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훈련 했던 경험과 여러가지 설문을 통해 TEE 훈련이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합니다.

기본적인 TEE의 특징과 장단점은 TEE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내용 중에서 24개 항목의 설문 결과 일부와 Markus Völker

의 연구를 정리했습니다.  
(단, 페루는 한국과 달리 지역교회 내의 성경 훈련보다는 신학교 커리큘럼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많음.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결과는 제외했음. 설문 대상은 페루 아레키파 지역의 에반젤리코 교회-IEP 소속 TEE 학습자들임. 높은 점수를 부여한 순서대로 기록.)

룹에서 여성들이 많은 경우에 고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혼자 공부하고, 소그룹에서 나누는 방식’이 잘 맞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TEE 교재를 통한 학습의 과정에서 인도자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설문 영역 1 : TEE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완료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

**1. TEE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은?**

-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 내가 공부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 소그룹에서 나눔이 좋았다.

**2. TEE를 계속하게 한 내적 동기가 있다면?**

-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었다.
-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에 도움이 된다.
- 혼자 공부하고 난 후 나누는 것이 나에게 맞았다.

이 질문 결과에서의 특징은, 먼저 여성들이 나눔과 격려에 대한 도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설문 영역 2 : TEE 학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이유들**

**1. 모임을 지속하는데에 어려움이 된 개인적 이유는?**

- 직장 일 등으로 바빠서
- 교회의 지원이 부족했다 (교회 일정 등)
- 내 안의 동기가 부족했다
-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2. 어려움이 된 외부적 이유는?**

- 지각하는 그룹원들
- 예배를 하지 않고 참석하는 그룹원들
- 준비가 덜 된 인도자

이 질문 결과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 어려움을 적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학습의 가치를 더 잘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석의 조건이나 기준을 높이는 것(세례나 선행 훈련)에는 중요하지 않게 느꼈습니다. 처음

에 참석할 때에 분명한 동기가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참석자들의 책임감있는 참여(시간이나 연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있는 일상을 위한 훈련이나 도움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설문 영역 3 : 어려움을 극복하고 TEE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와 방법들

#### 1.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 같은 그룹원의 동료
- 소그룹 인도자
- 담임 목사님
- 가족

#### 2. 어려움을 겪을 때 인도자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가?

- 70.69% : 연락받지 못했다 + 연락받은 기억이 없다

#### 3.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방법을 시도했나?

- 인도자와 목사님께 의논했다
-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 복잡한 스케줄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 그냥 그만두고 쉬었다

이 질문 결과들에서의 특징은, 어려움에 대한 극복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인도자인 반면, 어려움을 겪을 때 직접 의논을 하는 대상으로는

### 이 논문과 KTEE 사역에 대하여

Markus Völker의 한국 방문 당시 이 논문에 대해 잠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이 논문 결과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하자, 그는 ‘훈련된 인도자 trained group leader’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교회가 훈련된 인도자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TEE라는 훈련의 도구를 통해 대략 훈련할 수도 있고, 제대로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할 바에는 좀 더 진지하게 심혈을 기울여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KTEE는 이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TEE 세미나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강의 경우에도 새롭게 발전된 강의와 구성을 경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인도자 가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한 편집과 구성의 가이드와 인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조자



료와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인도자를 훈련하기 위한 도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자 훈련 핸드북과 슬라이드 자료, 그리고 간결한 인도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4. 효과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자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자 가이드 외에, 과정 별 오버뷰 영상과 오리엔테이션용 자료를 제작 중입니다.
5.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가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 외에도 지역교회를 위한 TEE 지도자 세미나, 인도자들을 위한 맞춤형 미니 세미나, 그리고 온라인 워크샵 등 현장의 필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TEE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 및 의논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ktee@ktee.org](mailto:ktee@ktee.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논문의 소고를 마치면서

Dr. Markus의 논문을 대략 고찰하면서 느낀 점은, 훈련의 현장이 열악하든 훌륭하든 간에 센터의 지도자들이 훈련 받는 학습자들을 잘 격려하여 꾸준하고 한결같은 배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도자를 세우기에 앞서 재생산을 염두에 두고 TEE 학습 방법에 따라 몸소 본을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인도자에 대한 애프터 점검이 항상 필요하다. TEE가 지역교회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은 좋은 훈련의 도구+센터 리더+훈련된 인도자에 있다.



책소개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 소그룹이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작년에 이어 오는 2024년을 준비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새로운 변화의 트리거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작금의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무기가 된다. 그리고 TEE는 그 주요한 열쇠가 되리라 생각한다.



**156p)** “3040세대도 자신들을 위한 모임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회 안에 3040 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절반 이상(58.7%)이 참여 의향을 나타냈다.”

**196p)** “신앙의 세계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신앙 세계 밖에서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따스한 관계를 통해 영원의 세계까지 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것일까? 그 대답과 대안은 서로 환대하는 분위기 속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며 쉽게 친밀해질 수 있는 교회의 소그룹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 변화, 소그룹, 소통, 교리, 다음 세대...

당연하게도 이 책에서 주장하는 주요 주제들이 낯설지는 않다. 여러 해 많은 목회자들이 토론하면서 고민해 온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현

실을 숫자와 통계표로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현실감을 준다.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과 진리는 영원하다. 하지만 지난 교회의 역사가 그려왔듯이, 그것이 표현되고, 전달되는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팬데믹 이후 이제 한국교회는 본격적으로 지난 100여년간 만들어온 방식에 새로운 질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책이 던지는 주제들과 질문은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의 용기와 시도를 요구한다.

특히 올해 제시된 내용들은 TEE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정돈된 교리와 성경 교육, 훈련된 인도자,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커리큘럼, 전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소그룹 등.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한 각자의 대답들에 TEE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 편집자

KTEE SCHEDULE

# 2024 상반기 사역 일정들

## TEE 세미나

- 1월 4-5(목금) 대면세미나/지구촌교회
- 1월 22-23(월화) Webinar
- 2월 22-23(목금) 대면세미나/지구촌교회
- 2월 26-27(목금) 대면세미나/홍산성결교회
- 4월 1-2(월화) Webinar
- 5월 27-28(월화) Webinar
- 6월 24-25(월화) Webinar

>> 온라인 세미나는 미주지역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ow to Preach 아카데미 (7주)

연중 2차례 계획



\*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고민들 있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면 항상 나 혼자 계속 가르치게 된다.”

“신자들이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잔뜩 하게 된다.”

“나 혼자 다 할 수 없는데 새로운 인도자를 세우기가 어렵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모임을 하고 싶다.”

“소그룹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좀 쉽고 재미있게 다들 참여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 TEE 지도자 세미나

1월4일 ~ 5일 (목-금) 오전 9:30~오후 5:00

서울 지구촌교회 / 양천구 목동동로 156 지구촌교회 사랑채플



**KTEE는 지역교회를 돕기 위해 계속 계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TEE를 처음 만나는 분들 뿐 아니라, 세미나 이후 시작하지 못했거나 수료한지 오래된 교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TEE는 한국교회를 응원합니다!**

### 강사진

한순진 목사 | 디렉터, 20여년 교회교육, 20여년 TEE 사역 경험  
김일경 목사 | 해외 이사장, 15여년 이상 하와이, 베트남과 여러나라에서 TEE 순회 사역  
최웅 목사 | 코디네이터(한국), 20여년 TEE 사역에 동역, MK 들을 TEE로 양육

### 소그룹 튜터

김승진 목사 | 총은교회 목회 현장에서 TEE로 사역 (전 이랜드, 현 (주)웹터즈 사목)  
이현충 목사 | 실무 간사, 15여년의 풍부한 TEE 실무 경험, 여러 워크샵 진행

### 등록 방법

등록금: 12만원 (세미나 교재 + 점심)  
링크를 통해 **세미나 신청페이지** 작성 후 입금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문의: 02.334.3489 | ktee@ktee.org | www.ktee.org)



**ktee.org**

▲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카메라로 촬영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세미나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

